

광주과학관서 다양한 체험 고르는 재미

발명·화폐·드론 등 전시·교육

학부모와 2인 1조 IT 캠프

리우 올림픽 맞이 이벤트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강신영)이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3일 광주과학관에 따르면 과학관은 오는 22일부터 ‘레오나르도 다빈치 : 타임머신’ 특별전을 개최한다. 지역 청소년의 과학·기술·예술 등 융합적 사고와 과학·문화적 소양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은 광주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르네상스 시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과학발명품과 회화 작품 81점을 선보인다. 미디어아트 작품 4개와 이탈리아 과학기술을 소개하는 부스, 유니뎀을 활용한 다빈치 작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입장료금은 6000원으로, 관람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다.

동국화폐연구소와 함께 진행 중인 무료 특별전 ‘Show me the 미래 Money’도 24일까지 관람객을 맞이한다. 동국화폐연구



■광주과학관 여름방학 청소년 프로그램

	레오나르도 다빈치 특별전	소미더 미래 머니	무한상상 IT 교육캠프	GIST 과학스쿨	물 체험장
기간	7월 22일 ~	~7월 24일	3기 8월 3~5일 4기 8월 18~20일	8월 17일 오후 7시	7월 23~8월 21일
요금	6000원	무료	무료	무료	3000원

소에서 제공하는 조선시대 화폐 등 전세계 희귀 화폐 500점이 전시된다.

희귀 화폐뿐 아니라 과학관이 마련한 화폐 속 숨은 과학, 과학인물 찾기 등 화폐에 숨겨져 있는 과학과 인물이야기 등도 들 어볼 수 있다.

또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교육프로그램 ‘무한상상 IT 교육 캠프’ 3기·4기 참가자도 14일부터 24일까 지 모집에 들어갔다. 광주에 거주하는 3~6학년 초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

원은 총 15팀 30명(학생·학부모 2인 1팀) 이다.

3기 주제는 ‘드론과 함께 하늘을 날다’ (교육기간 8월 3~5일), 4기는 ‘자석으로 만든 전자회로, 리튬비츠’(8월 18~20 일)다. 각각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광주과학관이 함께하는 ‘GIST 과학스쿨’도 8월17일 오후 7시 개최된다. 오영구 고등광기술연 구소 박사가 ‘빛과 원자가 함께 주는 춤’을

주제로 강연한다.

‘GIST 과학스쿨’은 GIST가 올해 8년째 진행하는 대중강연이다.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과학지식을 전문가들이 쉽게 전달하는 과학문화 확산사업으로, 이달부터 매달 광주과학관과 공동진행하고 있다.

또 23일부터 8월21일까지 28일간 과학관 외부 야외전시장에는 한여름 무더위를 식혀줄 ‘물 체험장’이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50분까지 운영된다. 물 체험장은 가로18m×세로10m 규모 풀장 두 개가 설치되며, 대나무로 물총을 만들어보는 체험행사도 열린다. 이용료금은 1인 3000원(24개월 미만 면제)이다.

이외 기존 CSI 과학수사대와 ICT 랩, 메디랩 등 7개의 테마형 과학교실 10종의 프로그램과 3D프린터, 3D펜 등을 다뤄볼 수 있는 7개 무한상상실 프로그램은 계속 운영된다.

‘2016 리우 올림픽’을 맞아 상설전시관 ‘스포츠클럽 생활’ 구역에서 방문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할 예정이다.

광주과학관 방학기간 프로그램 운영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sciencecenter.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는 062-960-6121.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과학인재 꿈꾸는 여고생 모여라

여성과학기술인센터 교육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단(단장 신말식)은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여고생을 대상으로 ‘엔지니어를 꿈꾸는 소녀들의 축제’를 연다.

전남대학교 캠퍼스 일대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이공계 진학에 관심 있는 지역 여고생들이 다양한 이공계 연구실 환경과 실험 등을 미리 접할 수 있도록 준비됐다. 이틀간 6개 연구실을 탐방·체험하며 각 연구실당 2시간씩 교육이 진행되는 무료 진로설계 프로그램이다.

전남대 공과대학 실험실 7개와 자연

과학·생활과학·농업생명과학대학 실험실 5개 등 총 12개의 실험실이 교육장 소다.

교수들과 실험실 대학(원)생들이 학생 눈높이에 맞춰 관련 학과를 설명하고 진행 중인 연구 프로젝트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19일까지로 WISET 호남제주권역사업단 홈페이지(honam-jeju.wiset.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탐방 희망코스’를 선택, 개인이나 단체(5~10인)로 지원하면 된다. 참가 학생들에게는 ‘이수증’을 발급한다. 전화문의 062-530-0495~8.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춤추는 공작거미 “내 이름은 리춘신”

〈중국 발레리노〉



공작거미 ‘마라투스 리춘신’



리춘신(왼쪽)과 바버라 베어 박사

평생을 춤추는 것으로 알려진 거미에게 중국 태생 세계적인 발레리노 리춘신(55)의 이름이 붙여졌다.

호주 퀸즐랜드박물관의 과학자 바버라 베어 박사는 퀸즐랜드주 오지에서 2014년 발견한 새로운 종의 공작거미(Peacock Spider) 이름을 ‘마라투스 리춘신’(maratus lincunxin)으로 붙였다

고 호주 언론이 지난 12일 보도했다. 리춘신은 2003년 자서전 ‘마오의 마지막 댄서’(Mao’s Last Dancer)를 발표했고, 2009년에는 호주인 브루스 베레스포드 감독이 이 내용을 영화화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공작거미들은 길이가 약 4mm다. 복잡

한 째짓기 의식으로 유명하며 평생 춤을 추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춘신의 이름이 붙은 거미 암컷은 단순로운 모습인 데 비해 수컷은 등에 있는 파란색 털을 공작 깃털처럼 세우고 암컷의 환심을 사기 위해 몸을 흔들어난다.

베어 박사는 공작거미의 움직임의 보고 무대 위의 무용수들처럼 아름답다고 생각해 리춘신 이름을 붙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베어 박사는 “(무용을 배우는) 딸과 함께 리춘신이 이끄는 무용단의 공연에 갔고, 무용수들은 아주 귀엽고 사랑스러워 마침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매미도 사투리가 있당께

섬·육지 서식 따라 소리변이

후타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매미 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이면 동이 틀 때부터 깊은 밤까지 매미의 ‘합창’으로 요란하다.

이런 매미 울음소리도 종이 같으면 모두 같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투리’(소리변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미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윤기상 세종과학예술융합학교 교사는 “국내 매미 중 육지에 사는 매미와 울음도에 사는 매미 소리는 다르다”며 매미 세계

사투리에 대해 말했다.

육지에 사는 애매미의 울음소리는 ‘준비부-리듬1부-중간부-리듬2부-종결부’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울음도 애매미는 중간부가 없고 리듬2부가 매우 짧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섬 매미의 울음소리가 육지 매미 소리보다 더 단순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대만, 일본의 애매미 소리가 각각 다르다는 것은 알려졌었지만 국내에서 애매미의 ‘사투리’가 발견된 적은 없었다. 윤 박사에 따르면 국내에는 총 12종의 매미가 서식한다. /연합뉴스



탐사선 ‘주노’가 전송한 목성 사진

무인 탐사선 ‘주노’ 목성 사진 첫 전송

케도 진입 6일 만에 작동

5년의 비행 끝에 지난 4일(현지시간) 목성 궤도에 진입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무인 탐사선 ‘주노’(Juno)가 궤도 내에서 찍은 목성 사진을 처음으로 지구에 전송했다.

NASA는 주노의 가시광선 카메라 주노캠이 궤도 진입 6일 만에 작동을 시작했다고 주노가 보내온 사진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주노캠은 궤도 진입 과정에서 방사선에 따른 혹시 모를 손상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전원이 꺼졌다.

주노가 목성에서 430만km 떨어진 궤도를 돌며 지난 10일 촬영한 사진 속에는 목성과 목성을 둘러싸고 있는

위성 4개 가운데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3개가 찍혔다. 목성의 붉은 색 반점인 대적점도 뚜렷하게 보인다.

행성과학연구소 캔디 한센은 “주노캠은 궤도를 돌며 계속 목성 사진을 촬영할 것”이라며 “첫 고화질 이미지는 주노가 목성에 더 근접하는 8월 27일에 찍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8월 5일 플로리다 주 케이프 커내버럴 기지에서 발사된 주노는 4년 11월간 28억km를 비행한 끝에 목성 궤도에 진입했다.

주노는 앞으로 1년 8개월간 태양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행성인 목성과 태양계 형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연합뉴스



G.O.Auction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일반 부동산 매매, 임대
경,공매 NPL 컨설팅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매 추천물건

- ★ 전남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11,546㎡ 건물 5,733㎡ 감정가 48억8천6백 ▶최저가 21억9천(45%)
- ★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나이트열 10층중 10층 스카이라운지상가83㎡ 감정가18억7천7백 ▶최저가8억7천7백
- ★ 광주 광산구 산정동 광주여대 인근 운전학원부지 토지6,655㎡ 건물443㎡ 감정가 27억6천1백 ▶최저가 27억6천1백
- ★ 광주북구용봉동 전대후문 인근 영화관 1층 684㎡ 상가 감정가 35억5천5백 ▶최저가 19억9천(56%) 식당, 대형편매장 적합
- ★ 광주 광산구 안창동 공장 대지 5,940㎡ 건물 5,872㎡ 감정가 57억6천7백 ▶최저가 25억8천3백(45%) 기아차공장인근
- ★ 광주 동구 금남로5가 대로변 산업은행인근 3층상가 대지 566㎡ 건물 827㎡ 광고효과최상 감정가 21억3천2백 ▶최저가 14억9천2백

투자추천 매매

- ★ 광주 북구 용두동 대로변6층 상가대지 525㎡ 은행, 사우나등 고수익 유동인구많음 ▶매매 55억원
- ★ 광주 북구 유동무인텔 대지1,010㎡ 건물1,610㎡ 객실 20개 월 5천만원 수익위치좋은 ▶매매 20억원
- ★ 광주 수완동 경향지구대 인근 아파트상권 4층상가 준주거지 대지 475㎡ 월 8백만원 ▶매매 17억
- ★ 목포시 연산동 롯데수후 인근대로변 버스정류장앞 대단위 아파트단지 배후 신축 3층건물 대지 1,461㎡ 광고효과 최상 ▶매매 35억
- ★ 광주 서구 풍암동 대형마트 대지 2,961㎡ 1층마트, 2층 의원, 3층 학원 대형주차장 매매가 상담결정
- ★ 광주 광산구 우산동 80미터도로변 3층무인텔 대지 2,372㎡ 건물 2,760㎡ 객실36개 ▶매매 58억 (용28억포함), 수익익 월평균 8천만원

수익형 매매

- ★ 광주 북구 신영동 첨단2지구 신축 4층빌딩 대지 782㎡ 건물 1,829㎡ 보증금 6억월2천3백 용18억 ▶매매 48억
- ★ 주월동 EGD원아파트 인근대지 661㎡ 현식당 운영중 투자적합 대형편매장상가건축적합 ▶매매 13억원
- ★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 3,245㎡ 지상 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7천 월 3천2백만원 ▶매매 48억 (요양병원하가취됨)
- ★ 전남 장성읍 행복 한옥마을 대지666㎡강변 조망무상 보조금3천만원 용자 4천만원 지원보양가 1억3천7백 ▶매매 1억3천7백 조정가능
- ★ 광주 남구 주월동 남구청 인근 고수익 4층상가, 오피스텔 대지 366㎡ 건물 947㎡ 지하, 1층 상가사무실, 2~4층 오피스텔 ▶매매 13억5천
- ★ 전남 영암군 월출산 조망 5층 모델 대지 1,181㎡ 건물850㎡ 대로변 내외부깨끗 ▶매매 4억(용2억7천) 투자적합 장기투숙 다수 직영추천

토지매매 010-6838-6008

- ★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토지 16,530㎡ 담양댐인근 계획관리 도로변 펜션부지추천 ▶매매 12억5천
- ★ 광양시 대형마트옆 나대지21,710㎡ 코너위치 숙박, 오피스텔 부지추천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광주 북구 장등동 토지 3,380㎡ 북부순환도로개통 매립완료 도로변 투자적합 ▶매매 8억
- ★ 광주 광산구 명화동 토지 4,040㎡ 대로변 투자적합 전망좋은 1층주거 ▶매매 11억
- ★ 담양읍 양각리 토지 400㎡ 시산마을내 위치좋은 조용한 전원주택부지 ▶매매 9천8백
- ★ 담양군 대전면 태목리 토지 2,610㎡ 북광주IC인근 전망좋은 공원용 투자적합 ▶매매 3억5천5백
- ★ 광주 북구 태령동 토지 11,052㎡ 대로변 광주북초교인근 전망좋은 투자적합 ▶매매 9억

상가, 주택, 토지, 임야 매매하실분 전속중개 접수 상담환영 062-714-2251